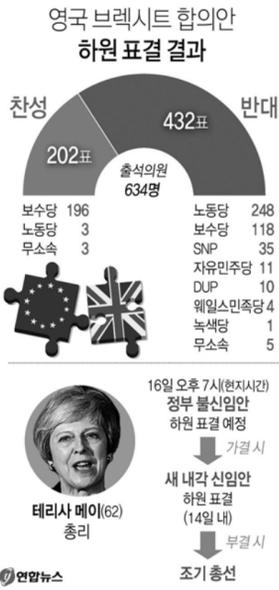


英의회 브렉시트 합의안 사상 최대 표차 부결



하원 찬성 202명, 반대 432명
노동당 “정부 불신임안 제출”

영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열린 승인 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영국 하원의원 634명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합의안은 230표차로 부결됐다. 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200표가 넘는 표차로 의회에서 패배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가장 큰 부결 표차는 1924년 10월 당시 노동당의 램지 맥도널드 총리가 기록한 166표다.

이번 승인투표에서 찬성 202표는 보수당 196표, 노동당 3표, 무소속 3표 등이었다. 반대 432표는 노동당 248표, 보수당 118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35표,

자유민주당 11표, 북아일랜드의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 10표, 웨일스 민족당 4표, 녹색당 1표, 무소속 5표 등으로 집계됐다.

집권 보수당 의원 중 118표가 테리사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제1야당 노동당 의원 중 합의안을 지지한 이는 3명에 그쳤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11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특별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고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과 EU 양측 의회에서 모두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특히 영국은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메이 총리는 이후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합의안 부결을 막아내지 못했다.

메이 총리는 16일 정부 불신임안에 대해 의원들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 BBC 방송은 16일 오후 7시께 정부 불신임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다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조기총선이 열리게 된다. 조기총선은 25회기일 내에는 열릴 수 없다.

메이 총리는 만약 의회가 정부에 대한 신임을 확인한다면 의회 내 각당 지도부와 함께 합의안 통과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이같은 논의를 통해 의회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EU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지명자가 15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 개입 않겠다”

美법무장관 지명자 청문회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로버트 무러 특검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검 해임을 지시한다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외압’이 닥치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 법무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법사위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물러 특검이 자기 일을 완수하게 해서 이 일(러시아 스캔들)을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과 의회, 미국인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 상원

의원이 특검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자 “그렇게 하겠다”면서 “특검 수사의 범위는 헌장과 규정에 의해 정해지며, 나는 그것들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청문회에서는 바 장관이 임명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법부를 운영할지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특성 탓에 그가 물러 특검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1월 경질된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은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에 대해 스스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 ‘제척’ 결정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운털이 박혀 모욕에 가까운 질타를 술하게 받았다. 바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는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연합뉴스

케냐 수도 나이로비 폭탄 테러...최소 15명 숨져

한국인 10여명 무사 대피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도심에서 15일(현지시간) 총격과 폭탄 테러가 발생, 최소한 15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통신·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소말리아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나이로비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지역 상업단지 내 두 집D2 호텔 복합건물과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지고 격렬한 총격 소리가 들렸다.

특히 이 지역은 호텔·병원·식당·은행·사무실 등이 밀집해있고 한국을 포함한 외국계 기업 사무실이 다수 있어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경찰은 이번 공격이 오후 3시께 복합건물 밖의 차량 폭발로 시작된 뒤 호텔 로비에서의 폭탄과 총기 공격이 뒤따랐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현재까지 최소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사망자 중에는 미국인과 영국인이 1명씩 포함돼 있다. 11명의 희생자는 케냐인들이며 나머지 2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지역 인근에는 우리 기업의 현지 사무소 등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별다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폭발 현장 인근에 있는 LG전자 등 우리 기업 소속 직원 10여명이 건물 밖으로 무사히 대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케냐 수도 나이로비 도심에서 15일(현지시간) 총격과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직후 경찰이 시민들을 피신시키고 있다. 외신은 이날 나이로비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지역의 상업단지 인근에서 폭탄이 최소 한차례 폭발했고 격렬한 총격 소리가 들렸으며 최소 15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류허 중부총리 “30~31일 워싱턴서 美와 무역 담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경제 참모인 류허 중국 부총리가 오는 30~31일 무역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SCM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이 기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무역전쟁 종식을 위

한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담판은 이달 초 베이징에서 있었던 차관급 협상의 후속 협상으로서, 협상의 격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은다.

차관급 협상에서 중국 측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비관세 장벽 제거, 금융 분야 외국인 투자자 지분 제한 완화, 미국산 곡물·에너지 대규모 수입 확대 등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中 작년 신규대출 2600조 ...사상 최대 규모

무역전쟁 경기 둔화 여파

인민은행 공격적 통화정책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기 둔화 국면을 맞고 있는 중국에서 지난해 한 해 약 2600조원 규모의 신규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신규 위안화 대출 총액은 16조1700억 위안(2684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신규대출 총액 13조5300억 위안보다 2조 위안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는 미국과 무역 전쟁이 경제에 급속히 둔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적당히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민은행은 작년 4차례 지급준비율 인하로 시중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또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기준율을 0.5%포인트씩 낮춤으로써 시중에 8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게 됐다.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경기 하강 국면에서 국영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민영기업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12월 민영기업 대출은 전월보다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 정부의 정책이 당장은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여수에서 사고 좋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1번지외 2필지,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가 - 32억(평당 750만원). 일시불 조정가 문의 - 010.3605.5000

